

장로의 목회적 역할
-교회에 유익한 장로의 8대 덕목을 중심으로-
김경래 장로

1. 지도자로서의 장로

우리나라 교계에는 약 30만 명의 장로들이 있다. 이들 중에는 복음사역에 유익한 분들도 있고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분들도 적지 않다.

최근에는 여성장로의 수도 늘어나 장로사회의 위상에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이들의 자격과 선출과정은 교단마다 다르지만 교회의 지도층을 형성하는 면에서는 공통점을 안고 있다. 그러니까 장로 세우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지상의 교회는 모든 다른 인간집단과 마찬가지로 지도자를 필요로 한다. 아무리 신앙으로 뭉쳐진 공동체라도 거기에는 의견과 이해관계의 차이가 있게 마련이다.

그 차이들이 조정되고 질서가 잡혀야 교인들이 건전하게 자라고 교회가 바로설 수 있다. 그래서 오순절 이후 성령이 충만한 초대교회에서도 사도와 장로로 불리우는 지도자들이 있었다.

장로는 교회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 성경의 원칙과 구체적인 상황에서 온갖 인간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는 교인들 사이에서 성경의 이상을 이룩하기 위하여 교인들을 영적으로 성숙시키며, 갈등을 조정하여 교인들의 힘을 결집하여 교회가 그 맡은 사명과 목회자가 성직을 잘 감당하도록 하는 역할을 맡는다.

그러므로 장로는 신앙공동체의 벼슬도 아니고 상위계급도 아니다. 땅위의 교회가 그 기능을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지도력을 행사하도록 세움을 받은 청지기에 불과하다.

장로직은 그 자체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교회의 유익을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 마치 대통령, 장관 등 공무원이 국민의 이익을 위한 기능직에 불과한 것과 같다.

그러므로 그 목적을 상실하고 마치 감투나 쓴 것처럼, 특권인 것처럼 행세하는 것은 착각이다. 근년에 와서 마스크에 오르내리는 많은 장로들을 볼 때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장로인지 답답한 생각을 금할 수 없다. 장로가 바로 서면 교회는 자라나고, 장로가 넘어지면 교회도 약화된다.

그러니까 장로는 언제나 자기 십자가를 지고 교회를 섬겨야 한다.

그리고 목사와 장로는 동등한 권리와 권위를 행사해야 한다. 누가 더 높으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성경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 모두 교인들의 투표로 그 직무를 감당하기 때문이다.

목사도 장로의 일종으로 보는 것이 장로교의 특성이다. 다만 목사는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권리를 소유하며 성경이 가진 위치를 고려할 때 큰 권리이긴 하나 그 권리를 적용하고 구체적인 정책을 결정하고 처리하는 데는 한 사람의 지혜보다 교인들의 존경을 받는 여러 사람들의 지혜가 합쳐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요즘 한국에는 『목사의 교회』, 『장로들의 교회』 등이 생겨나고 있다. 이는 비성경적이며 인본주의적 가치관의 소산들이다.

우리가 장로의 직분과 그 기능을 잘 감당하려면 먼저 목회자 못지않게 교인들을 알아야 한다. 그들이 원칙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들의 사고방식과 가치관이 무엇인지 알아야 그들을 올바르게 지도할 수 있다.

특히 다가오는 21세기 한국사회는 어떤 모습을 가질 것이며, 교인들은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가에 관해 성찰할 필요가 있다.

1-1. 사회가 전반적으로 합리적이 될 것이고, 교회도 그 영향을 받을 것이다.

사회가 합리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국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불가결하기 때문이다.

계속 발달되고 있는 교통, 통신 기술과 빈번한 교류로 세계는 점점 하나의 마을(global village)로 변하고 있고, 경제활동도 전 세계를 상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한국은 이제까지도 그랬거니와 앞으로 더욱 더 모든 다른 나라와 경쟁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 상황에서는 효율의 극대화에 어긋나는 비합리적 경영방식으로는 도저히 생존할 수 없고, 합리적 경영은 투명성을 동반한 합리적 사고를 전제로 한다. 특히 한국의 경제계는 IMF의 충격으로 정치계나 종교계, 심지어 학계보다도 더 급속한 변혁을 진행 중에 있다. 경제가 삶의 모든 영역을 지배하고 있는 이 때, 이런 합리적 사고방식은 문화전반에 확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교육과 의식수준의 향상도 합리성 제고에 중요한 몫을 차지할 것이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고등교육을 받을 것이며, 교육수준의 향상은 사람을 감정적으로 만들기보다는 이성적으로 만든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교육열이 높은 나라에서는 그 변화의 속도가 매우 빠를 것이다.

이런 경향은 부조리와 비리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사회 자원의 낭비가 줄어들 것이며, 내용 없는 권위는 약화될 것이다.

전통적인 가치와 관습들도 합리성의 잣대에 따라 평가될 것이며 상당할 정도로 약화되어 전통적인 것은 한복이나 한옥처럼 점점 삶의 중심에서 쫓겨나서 한 것 장식품의 위치로 잔락할 것이다.

지금 한국교회의 가장 큰 힘이 되고 있는 감정적 열정은 많이 식을 것이고, 교회의 카리스마적 권위는 점점 더 무시될 것이다.

사람들은 점점 더 비판적이 될 것이고, 그것이 지나쳐서 성경의 권위와 믿음 자체에 대해서도 냉소적이 되고 회의적이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

1-2. 사람들은 과거 어느 때보다 더 쾌락을 추구할 것이고 물질 중심적이 될 것이다.

이런 경향은 이미 상당할 정도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 앞으로 더욱 강해질 전망이다. 사람들은 가능한한 노동을 적게하며, 정신적 고통 가치보다는 물질적 하급가치를 더 추구할 것이다.

이런 현상은 이미 미국이나 서구 그리고 가까운 일본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제까지 한국교회의 큰 힘이 되어 온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신앙은 약화될 것이며 더 많은 신도들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 변할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형식적이고 익명적인 기독교인으로 남아 있기를 바라기 때문에 대형교회를 선호할 것이다.

상대적으로 희생적이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중·소 규모의 교회로 모일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작은 파도는 더욱 약화될 것이며, 교회개혁은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젊은이들과 불신자들은 매력을 끌 만한 한 상황이 지나가 버렸기 때문이다.

1-3. 사회가 철저히 개인주의적이 될 것이다.

한국인은 일본인보다 이미 더 개인주의적이 되어 있다.

앞으로 개인주의가 미국의 경우처럼 좀 더 합리적으로 될 가능성은 있으나 앞으로 개인주의가 미국의 경우처럼 좀 더 합리적으로 될 가능성은 있으나 결코 일본처럼 집단주의로 변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아직도 문제거리로 되어 있던 혈연, 지연, 학연은 이제까지 감당했던 기능을 행사 하지 못할 것이며, 심지어 친족과 가족관계에 있어서도 전통적인 유대는 약화될 것이다.

이런 경향도 교회에 결코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까지 한국교회 성장에 크게 작용한 것은 전통사회의 훈훈한 인간관계였다.

갑작스런 산업화로 말미암아 깨어져 버린 전통사회의 인간관계를 교회가 제공해 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는 사람들이 산업사회의 개인주의적 생활방식에 어느 정도 익숙해졌으므로 교회의 그 기능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되었다.

더군다나, 교회조차도 많이 대형화되어 그런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었다.

* 교회에 유익한 장로의 덕목

훌륭한 지도력을 가진 장로는 교회안의 많은 시간, 재정, 정력의 낭비를 줄이고, 교회성장, 교인의 영적성숙, 선교 및 구제사업 등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

교회는 평화로워야 하고 목회자와 교인 간에 갈등이 없으면 성장하게 되어 있다.

한국교회는 훌륭한 지도자의 결핍으로 많은 손해를 보고 있다. 우리는 그동안 훌륭한 지도자를 충분히 못가졌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삼분오열된 이유 가운데 매우 중요한 것이 지도자의 결핍이라 할 수 있다.

한 집단이 당할 수 있는 가장 큰 재앙 가운데 하나는 자격 없는 사람에게 의하여 다스림을 받고 지도를 받는 것이다.

유다가 받을 벌을 예언 하면서 이사야는 “그가 또 아이들로 그들의 방백을 삼으시며 적자들로 그들을 다스리게 하신다”(사3:4)했으며, 그 결과로는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사3:5)이라 했다.

모든 질서가 무너지고 연합은 깨어지면 모든 사람, 특히 그 집단의 약자들이 그 피해자가 되고 만다.

어리석고 잘못된 장로는 교회의 암초와도 같다. 반면에 좋은 장로는 교회의 자랑이며 큰 축복이라 할 수 있다.

자질을 갖추지 않고 지도자가 되겠다는 사람들이 문제지 자격있는 지도자가 되려고 노력하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다.

“미쁘다 이 말이며,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함이로다”(딤후3:1), “잘 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증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이다.”(마25:21)

어떻게 해야 좋은 장로가 될 수 있는가?

직함만 갖고 교회일에 무관심한 장로, 당회에도 잘 참석치 않는 장로는 진정한 장로의 지도력을 행사할 수 없다. 성도들이 믿어주고 알아주고 존경할 수 있어야 지도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1) 그리스도에 헌신된 자 :

기독교적 지도자의 근본적이요 첫째 조건을 그 사람이 진정 그리스도와 그의 왕국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용의가 있는 사람인가 하는데 있다.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그 믿음에 일관성 있게 사는 사람이라야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고 사회에서 기독교적 지도자가 될 수 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자신을 위해서 사는 가장 좋은 방법임을 확신할 수 있어야 그리고 교회에서는 그런 사람만 지도자로 뽑아야 한다.

세상의 권세나 재력, 지식이나 명예에 편승하여 신앙의 열매를 보지 않는 잘못 뽑은 장로는 교회의 큰 재앙이 되기도 한다.

(2) 지도력의 바른 행사 :

자신의 명예, 위신, 이익을 위하여 장로가 되려는 사람은 이미 지도자 자격이 상실했다고 보아야 한다. 소위 “하구쟁이”는 위험하다.

이것이 기독교적 지도자와 세속 지도자와의 차이기도 하다.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거룩한 목적달성을 위해서 헌신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왕국의 이익과 교회의 이익이 동일할 때만 교회이익은 정당화되며, 배치되면 교회의 이익은 상

실되고 말 것이다.

(3) 비합리적 권위주의를 탈피 :

모든 직무는 그것의 이행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권리, 힘, 혹은 권위가 필요하다.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데도 역시 그에 필요한 권리, 힘, 권위가 주어질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모든 힘, 권리, 특권은 그것을 남용하려는 유혹을 내포하고 있다.

“모든 권력은 부패하고, 절대적인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는 액톤(Acton)의 말은 목사와 장로들에게도 적용된다.

교회 지도자들의 경우에는 권위와 특권의 남용이 기득권을 유지, 보수하려는 권위주의의 형태로 나타나기가 쉽다.

권위주의란 권위가 주어진 목적을 망각하고, 단순히 권위 그 자체를 즐기는 잘못된, 그것은 결과적으로 진정한 지도력을 약화시키고 올바른 권위까지 냉소의 대상으로 만드는 매우 무서운 병이다.

교회에서의 영적 지도는 권위와 권리를 요구하거나 행사하는데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피지도자에 의하여 인정되는데서 이루어진다.

권위주의에 빠지지 않으려면 권력행사를 결제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어 두어야 한다.

서울 영동교회, 한영교회 등에서 시작된 장로 휴무제라든가 사역자들의 기본급 평등지급, 외부감사제의 실시 등은 참고할 만한 사례가 될 것이다.

(4) 정직성과 순수성 :

장로는 일구이언하지 말아야 한다. 믿을수 있어야 한다. 말에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은 결코 좋은 장로가 될 수 없고, 지도력을 행사할 수 없으며, 지도자로 세우지 말아야 한다.

성경은 진리와 신실성을 동일시하고,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를 미쁘신 분으로 계시하셨다. 그의 언약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그가 일구이언하지 않고 끝까지 신실하시기 때문이다.

반대로 마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거짓말하는 것이요, 그러므로 마귀는 거짓의 아버지다. (요8:44)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부정적이고 신실하지 않은 사람이 장로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위대한 지도자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고전11:1) 고 하였고, 젊은 지도자 디모데에게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기를 부탁했으며 (딤후 4:12), 디도에게도 “범사에 네 자신으로 산한 일의 본을 보” 이라고 (딤후2:7) 명령했다.

베드로는 장로들에게 “양우리의 본이 되라”고 권했다. 바로 이 점에 있어서 교회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나타나야 한다.

그리고 바로 이 점에서 수많은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실패하였다.

(5) 공정한 판단 :

범사에 공정해야 믿을 수 있다. 신실함과 공정성은 지도자의 생명이다.

바울 사도는 젊은 지도자 디모데에게 “아무 일도 편벽되지 하지 말”것을 당부하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그것을 엄히 명령했다. (딤후 5:21) 지도자는 공정한 재판관이라야 한다.

공정성은 하나님의 속성이다. 하나님은 공정한 재판관이시며 공정한 판단은 판단 능력에도 달려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고 사리사욕을 초월할 수 있어야 가능하다.

공평하고 공정하지 못한 판단은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 내고, 판단의 권위는 무시된다. 억울한 일이 많아지면 사람들은 원칙대로 행동하지 않게 되고, 불가피하게 무질서가 뒤따라서 연합이 깨어져서 집단의 힘은 그만큼 약화된다.

고린도교회에 여러 가지 불미한 일이 많이 일어났던 것은 고린도 교인들 간의 분쟁을 공정하게 판단할수 있는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고전6:1-5)

(6) 절제와 희생의 삶 :

감정, 언어, 욕망, 명예, 권력, 재물에 대하여 절제하는 심성이 장로들에게 요구된다. 인간이 동물과 다르고 어른이 아이와 다른점은 자발적인 절제력에 달렸다.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 역시 구성원들의 절제력으로 가능된다.

절제에서 합리성이 생겨나기 때문이다. 지도자는 감정과 유혹, 욕망을 절제할 수 있어야 전체의 이익을 달성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지도할 수 있다.

특히 장로는 세상의 가치관을 교회 안에 옮겨와 목회자들의 절제력을 훼손치 말아야 한다.

장로는 세속적인 욕망의 대상인 돈, 권력, 명예, 쾌락을 희생할 수 있어야 존경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겸손할 수 있다. (깔아뭉개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 어디까지나 섬기는 자세가 생활화되어야 한다.

(7) 재생산 능력 :

지도자의 목적은 지도자가 필요 없게 되는 것이다. 경찰서의 궁극적인 목적이 경찰서 없는 사회를 만드는 것과 같다. 온 교인이 그리스도 앞에서 동일하게 섬기는 성도가 되도록 해야하며 한사람이라도 더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도록 만들어야 할 의무가 장로에게 있다고 본다.

예수님은 공생애 3년 동안에 주로 12제자를 훈련시키는데 주력하셨고, 사도들도 모두 후계자들을 훌륭하게 키우는데 관심을 기울였다.

바울은 디모데를, 베드로는 마가를 키웠다.

우선 한국교회의 장로들은 소속 교회 안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골라 훈련시켜야 한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모두 능력 있는 사람일 필요는 없고, 하나님 앞에서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보다 더 귀하다는 보장도 없다.

그러나 지도자의 경우는 다르다. 복음에 대한 단순한 열정만으로는 지도자가 될 수 없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가장 큰 약점 가운데 하나는 능력 있는 사람들을 교회 지도자 후보생으로 유인하는데 별로 성공하지 못했고, 그들을 양성하는데도 장로들이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이다.

지도자 개인들의 성취욕, 개교회의 성장과 사업에 모든 관심을 기울이고, 교단 전체, 교계 전체를 위한 신학교 교육을 제대로 후원하지 않고 있다.

많은 한국교회 장로들은 사회에 내 보낼 기독교 지도자 양성에 무관심했고, 부교역자 훈련에도 인색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앞으로 교계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지도자를 제공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 이미 상당할 정도로 겪고 있다. 할 일은 너무 많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은 너무 적다.

그러므로 한국교회 장로들은 미래의 지도자 양성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더 많이 투자해야 할 것이다.

벽돌은 번식할 줄 모른다. 그러므로 벽돌에 투자하기 보다는 사람에게 투자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더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것이다.

(8) 목회자의 상호협력 보완 :

장로는 교회안의 전문사역자들과 협동할 수 있어야 하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협력할 수 있도록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서로 다른 직분과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평화롭게 서로 협조하고 약점을 서로 보완할 수 있어야 한다.

이제까지 한국교회 장로와 목회자들이 이 점에 있어서 좋은 결과를 낳지 못했고, 그것은 한국교회 사역에 커다란 지장을 초래했다.

협력하고 연합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사업보다 자신의 명예, 위신, 이익을 더 중요시하기 때문이고 다른 사람의 권위, 권리, 체면 등에 대한 고려를 하는 교양이 부족하며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서로 협력하지 못하는 장로나 목회자는 진정한 교회의 장로나 목회자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이 모든 덕목을 자기만 갖추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교회전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므로 동료 장로나 목사의 잘못을 고치는 책임도 감당해야 한다.

궁극적인 목적은 자기가 훌륭한 장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올바로 되는 것에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

끝으로 목회적 역할을 즐겁게 감당하는 좋은 장로는 자기가 소속한 교단의 잘못을 보고 고치는데 무관심해서는 안된다. 이것은 장로의 직무유기라 할 수 있을 것이다.